

# 여름 조각



글 유상은  
디자인 도은교

나의 어린 날의 여름은 즐거웠다.

동그란 이마에 땀이 맺힐 때도 있었지만 머지않아 시원한 물줄기에 기대어 신나게 놀았고, 무더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칭얼댔 때도 있었지만 머지않아 그 불편함보다 배로 달고 시원한 수박이 입안을 가득 채워 내 온몸을 즐겁게 했다.

혼자 더위를 식혀야 하는 근래의 여름밤이면 더 더욱 생각이 난다. 내 동그란 이마의 땀을 식혀주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했을 어른을. 당신의 더움 따위는 내팽개치고 작은 것의 칭얼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가며 수박씨를 바르고 있어야 했을 어른을.



여름이면 나는 늘 같은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열기는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집 안에는 오래된 시간의 온기가 가만히 흐르고 있었다. 반질반질 닳은 나무 바닥, 낮게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 창가에 모여 앉은 초록 색깔들. 햇빛은 그 사이를 천천히 지나 바닥 위에 놓고, 나는 그 빛을 밟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살았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바깥에서는 분명 매미가 울고, 햇빛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 쬐고 있었을 텐데, 그 집 안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흐른 다기보다,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리게 고여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몸을 맡긴 채, '매미는 한 호흡에 몇 번까지 울 수 있을까' 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기 일쑤였다.

선풍기 바람이 느리게 지나가고, 창가의 잎사귀들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이유 없이 편안했다. 태양이 작열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어쩌면 그 집은 더위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 더위를 잊게 만드는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나는 늘 그 집 안에서 가장 시원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노력 없이 얻은 그 자리에서, 나는 여름을 쉽게 지나왔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여름은 가끔 낯설다. 그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이제는 쉽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비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 비는 며칠이고 같은 자리를 맴돌며 세상을 천천히 적셔갔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는 숨을 삼키듯 무거웠다. 우산을 써도 어깨는 젖었고, 양말 끝부터 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축축해지는 계절이었다.

풀숲에 앉아 비를 피하던 고양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이 계절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게 만든다.



빗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깊게 스며들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주었고, 잠시 미뤄두어도 괜찮다는 핑계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멈춰 있는 하루 속에서, 조금은 느리게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겠지만, 그 잠깐의 정지 속에서 나는 알게 된다. 멈춰 있는 시간도 결국은 흘러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을 찌르듯 밝았고, 물 위에 부서지는 빛은 차마 오래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반짝였다. 길 위의 공기는 일렁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다. 여름은 늘 그렇게, 몸으로 먼저 다가왔다.

그럼에도 나는 가끔 발걸음을 멈춘다. 뜨거운 공기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물결 위에서 흩어지는 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순간들. 견디기만 하던 계절 속에서도, 잠깐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틈이 있었다.

더위는 분명 버거운 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또렷한 장면들을 남긴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풍경들이, 나중에 되어서야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의 빛, 그날의 공기, 그날의 나.

그래서 나는 매번 이 계절을 힘들어하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한다. 지나고 나면 결국 다시 떠올리게 될 순간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은 그렇게, 견디는 동안보다 지나고 나서 더 오래 남는다.